현장과 시각

MB시대, 시민사회의 고민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지난 2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사)광주리더십센터에서는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비전21(이사장 윤장현)과 전남사회연구회(회장 류한호)가 함께 마련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광주·전남지역 전망'이라는 주제의 집담회였다.

이날 행사에 눈길이 쏠린 것은 17대 대선 결과 '정치적 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허탈감과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지역내 진보적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달여만에 입을 여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 지역사회에 미칠 변화와 파장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문화중심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의 미래' '주민 삶의 질' 등을 주제로 한 4개 세션(부문)의 학술회의에 이어 말미에는 모두가 한데 모여 '17대 대선 이후 광주·전남의 미래'를 화두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토론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과 진보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한 탓이었다. 참여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소통 실패가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한·미FTA 및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개혁세력간 내부 분열 심화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은 진보진영의 오류로 지적됐다.

정치적으로는 국정과 지방행정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의회권력마저 독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 정부와 소통 단절, 이에 따른 지역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인수위를 비롯 차기 정부와 지역현안을 논의할 인적 채널이 와해된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폐지를 비롯 공동혁신도시, 서남해안 개발 등 지역현안의 차질을 걱정했다. 실용과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주의적 접근은 광주·전남을 낙후의 악순환속으로 다시 밀어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들도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과 호남 인사 안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한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은 긴 울림을 남겼다. "누가 집권했든간에 문제는 '지역사회에 축적된 역량이 있는가' '광주는 민주·인권도시에 걸맞는 행보를 해왔는가'이다. 문화수도를 둘러싼 논란처럼 끝없이 논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치열한 토론속에서도 일이 되도록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시민사회와 지식인, 자치단체가 다시 한 번 내부로 시선을 돌려 냉철한 자성 위에 지역의 미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이었지만, 곱씹어 볼 만한 여운 깊은 질타였다.

/who@kwangju.co.kr

삼성물산 부사장 소환 조사

삼성특검, 계좌 개설 경위·비자금 조성 개입 등 추궁

삼성화재 압수물 분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7일 삼성화재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계열사 임원 소환조사를 병행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께 차명계좌 명의자 가운데 한 명인 정기철(54)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좌 개설 경위와 비자금 조성·관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삼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의 해외구매 대행과 그룹 내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다른 계열사보다 쉬우며, 런던·타이베이·뉴욕 지사는 삼성SDI와 손잡고 2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곳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정 부사장은 조준형 변호사와 함께 출석, 8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화재 본사와 수유리 전산센터,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 용인 물류창고 등에 대한 이틀 간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박스 107개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내부문서와 회계장부, 고객에게 지급 또는 미지급된 보험금 내역을 포함한 고객 관리자료, 백업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삼성화재가 고객 보험금을 빼돌려 연간 1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창고에서 나온 수천점의 미술품들 중 비자금으로 구입한 의혹이 드는 작품들에 대한 확인작업도 계속하고 있으며, 삼성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다음주 초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일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26일 출석조사를 받았던 삼성화재의 경리담당 김모 부장은 현장에서 메모지를 숨기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하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비자금 의혹 외에 '삼성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사건 참고인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불법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삼성SDS·e삼성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사건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6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부인 미첼 여사와 함께 프라이머리(예비경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 신당파 '진보정당 운동' 출범

민주노동당 내 신당창당파가 26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예비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자주파(NL)의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요구하는 강경 평등파(PD)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당창당파는 이날 오후 용산구 민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고 조승수 전 의원,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 최혜영 전 의정부여성회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 지도위원으로 김혜경 전 당대표, 홍세화 한계레신문 기획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자유신당 당명 '자유선진당'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추진 중인 가칭 자유신당이 당명을 '자유선진당'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유신당측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 비록 가칭이지만 당명을 20일도 안돼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혼동 때문. 두 당 모두 약칭이 '신당'이 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에 부정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자유신당도 외면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수하르토 前 印尼대통령 사망

수하르토는 누구? 32년 철권 통치 번영 견인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통치했던 수하르토 전(前) 대통령이 27일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전담 의료진 중 한명인 크리스티안 요하네스는 이날 오후 1시 10분(현지시간)에 수도 자카르타의 페르타미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숨졌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전날 밤부터 수하르토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언론은 군과 경찰이 수하르토의 임종에 대비, 가족 선산이 있는 자바섬 중부에 장지를 마련해 뒀다고 보도했다.

수하르토는 지난 1996년 48세를 일기로 심장병으로 숨진 부인 고(故) 티엔 여사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오래전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지병으로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수하르토를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었던 인도네시아 검찰은 병세 악화를 이유로 2006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작년 7월 대통령 재직시 횡령한 자선단체기금 등 14억달러의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수하르토(86)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비판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번영을 이끈 군사·정치 지도자였다.

인도네시아 군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 신생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계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수하르토는 1965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1967년에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야할 때까지 7선을 기록하며 32년간 철권 통치했다. 그는 1997년 인도네시아에 외환위기가 촉발되기 전까지 석유와 가스산업의 수익을 이용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덕분에 '개발의 아버지'로 국민의 추앙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젠 '슈퍼 화요일'이다"

美대선 민주·공화 후보들 사활 건 총력전

캐롤라이나 경선 오바마, 힐러리에 압승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오바마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은 20여개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을 겨냥한 총력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각) 열리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경선에 주력하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도 '슈퍼 화요일' 결전에서 승기를 굳힌다는 전략 아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다음달 5일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에 걸린 대의원 수는 1천600여 명. 오는 8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매직 넘버'가 총 대의원(4천50명)의 과반인 2천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슈퍼 화요일'만 지나면 승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더욱이 아이오와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 승자인 오바마와 뉴햄프셔, 네바다 경선에서 이긴 힐러리가 각각 2승 2패의 전적으로 열흘 뒤 '슈퍼 화요일' 결전에 나섬으로써 승기를 잡기 위한 두 후보 간의 각축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지지율에서 앞서는 힐러리는 '슈퍼 화요일'에 대비, 이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저지 등을 한바퀴 돈 뒤 2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도착했으며, 26일 오후 이 지역 경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테네시주 네슈빌로 이동해 표밭갈이 강행군을 계속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승리로 기세를 올린 오바마는 27일부터 조지아와 앨러배마주 등을 돌며, 흑인 표를 집중 공략하는 선거운동을 펼친다. 오버마 측은 아이오와에서 이긴 뒤 뉴햄프셔와 네바다에서 힐러리에게 졌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표 차이가 작았던 데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큰 표차로 승리해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일단 57명의 대의원이 걸린 29일 플로리다 경선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謹賀新年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상 열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주 영 순
보해양조(주) 사장 임 건 우
(주)행남자기 대표이사 창업회장 김 준 형
회장 김 용 준
신안관광(주) 회장 우 경 선
신안건설산업(주)
(주)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대표이사 임 영 춘
(주)동명전력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 경 구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이 상 현
(주)한양 회장 이 정 구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 김 용 부
대림종합건설(주) 임직원일동
KT목포지사 임직원일동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임직원일동
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 임직원일동
한국음식중앙회전남지부 임직원일동
목포시유치원협회 회원일동
(유)현성사업 임직원일동
목포한국병원 대표원장 류재광 외 임직원일동
학교법인중앙병원 원장 이승택 외 임직원일동
목포기독병원 대표원장 김경영 외 임직원일동
목포의료원 임직원일동
목포미즈아이병원 대표원장 이양구 외 임직원일동